

Dept. of Economics, University of Kent, 2019 방문 결과

I. 출장 개요

- 출장지: Canterbury, UK
- 출장기간: 2019년 6월 6일~9일
- 출장자: 최우진(경제전략부 부연구위원),
- 출장목적: 대외 충격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/ 자본유출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문가 면담
- 출장자 활동사항
 - Ilhan Guner 교수, Anthony Savagar 교수, Miguel Leon-Ledesma 교수, 황경인 박사(post-doc) 등 면담
 - 면담의 상세 내용은 아래에 요약한 내용을 참조

II. 전문가 면담 및 영국 사례의 한국 활용 가능성 논의

- 영국 출장의 의의
 - 영국은 가장 발달한 선진국들 중 하나이나 유로(EURO)

혹은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개방경제이며 이에 따라 소규모 개방경제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.

- Dept. of Economics, University of Kent에는 대외 충격과 자본유출입에 따른 영향 등 국제 경제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며 최근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생산성 감소 패턴(mark-up variation 등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)에 대하여 영국 정부 용역 등을 수행 중에 있음.
-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면담,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소규모 개방경제를 주제로 수행되는 연구들의 한국 적용 가능성을 가늠해보았음.
- Ilhan Guner 교수는 생산성 및 기술 개발 분야의 전문가로서 최근 자본유출에 따른 유럽지역 생산성 변화 연구 수행 중
- Miguel Leon-Ledesma 교수는 국제 금융 분야에 있어 영국의 저명한 전문가 중 한명으로서 대외 충격 및 실질 환율, 아울러 이에 따른 분야별 생산성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신흥국의 위기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연구들을 수행 중임.
- Anthony Savagar 교수는 기업의 진입 퇴출과 그에 따른 거시 생산성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 영국의 생산성 하락 및 그 배경에 대한 이론 및 실증 연구를 수행 중에 있음

- 영국 정부가 발주한 용역에서 variable mark-up 변화에 따른 생산성 변화가 최근 영국 생산성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의 실증적 분석 중
- 황경인 박사는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해외 자본 유입이 mark-up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중에 있으며 이를 한국 데이터(이마트/테스코)에 적용하여 실증 분석

□ Miguel Leon-Ledesma 및 Ilhan Guner 교수 면담 내용

- Gopinath et. al. 2017 의 주장에 따르면 유로가입 이후 남부 유럽으로의 자본유입이 생산성이 높지 않은 기업으로 배분되면서 총 생산성 하락을 가져왔음.
-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 스페인, 이탈리아, 포르투갈 등 국가의 제조업체 한계자본이윤의 이산(dispersion)이 유로 가입 이후 증가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음.
- 그러나 최근 이러한 흐름이 바뀌면서 남부 유럽에서 자본이 이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Guner 교수는 Gopinath et. al. 2017와 반대되는 현상의 함의를 연구 중
- 이러한 자본 유출에 따른 총 생산성 변화는 한국 사례에도 적용 가능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한국 사례 적용 및 해석 가능성을 논의
- 국제패널분석 수준에서 외환보유액과 자본계정정책

(capital account management)등 정책 결합의 경우 제조업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실증적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음(Choi and Pyun 2019 참조)

- 이러한 자본유출 및 제조업체 등의 자본생산성 향상이 한계생산성의 이산(dispersion)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가설 검정이 가능
-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Bureau van Dijk의 기업재무 데이터베이스인 ORBIS 데이터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거시 경제 전체에서 얼마 만 큼의 범위를 포괄하는지에 대해서 확인

□ Anthony Savagar 교수 및 황경인 박사 면담 내용

- 개별 기업 및 전체 산업의 mark-up 변화는 통화 정책 운용이나 산업의 역동성 등 거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.
- Anthony Savager 교수의 경우 개별 기업의 진입 퇴출 과정에서의 variable mark-up 변화에 따른 관련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
- 최근 영국의 생산성 저하의 원인을 관련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른 실증 연구를 영국 정부 용역으로 수행 중
- 이에 상기한 방법론이 한국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지,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유의해야하는 점은 무엇인지

등에 대하여 문의 및 토론

- 황경인 박사가 수행중인 한국 서비스 섹터의 mark-up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외자본이 국내 시장의 mark-up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상기한 주제가 한국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.